

發 刊 辭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시대 이후 안보 보다는 통상 및 산업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가고 있는 변혁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인류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고도 정보화사회로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 통신, 반도체 등을 포함하는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도 먼 장래를 내다 보고 정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책정하여 막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그동안 매년 2배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임금 및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이 격감하게 되어 수출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경제계획의 부문계획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정보산업 및 정보화 촉진시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공동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법의 제정을 통해 전략과제의 연구 개발 지원확대, 수요 창출을 통한 정보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정보산업의 정책은 국내의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시장 등 국제적인 흐름도 잘 파악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종 업계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PC 중간재 표준화 추진 등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정보산업의 육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정보산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사가 지난 91년부터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공동으로 情報産業年鑑을 발간하게 된 것도 이같은 우리 정보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그해의 정보산업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정보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年鑑은 세계 및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동향은 물론 관련 정책, 발전 방향 등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기업 및 연구기관,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年鑑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집필위원 여러분과 감수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공자원부 관계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이를 도와주신 관계기관 및 업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9월

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代表理事 朴 正 雄